기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Augustus the Strong

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는 작센의 선제후 가문 최초로 1697년 폴란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후 18세기 역사학자들은 그를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로 칭송했습니다. 작센 공국은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왕이 되고자 열망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선제후였던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폴란드의 왕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야심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19년 자신의 아들과 신성로마제국 황녀의 혼인을 성사시켜 훗날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왕'을 의미하는 모노그램 "AR(Augustus Rex)"을 궁전 곳곳에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 츠빙거 궁전과 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을 건설하고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사냥 대회와 가면무도회, 연극, 오페라 공연과 같은 각종 행사를 벌였습니다. 당시의 연회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보여준 절대 왕정의 권위를 동경하였으며, 드레스덴에서 이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riedrich Augustus, Elector of Saxony, became King of Poland in 1697, the first of his family. Historians in the 18th century praised him as "Augustus the Strong." As Elector of Saxony, a princely state in the Holy Roman Empire, he could not became king without permission from the Holy Roman Emperor. His aspiration for kingship led him, a Protestant prince, to convert to Catholicism to become King of Poland. After securing the Polish crown, his ambition was directed towards the politics of the emperor. Through marriage of his son to a daughter of Holy Roman Emperor in 1719, he hoped that his son might thus obtain the imperial crown.

After his ascension to the throne, he placed his monogram, "AR (Augustus Rex)" throughout his palaces and ceremonial places to emphasize his authority and prestige. He built magestic and magnificent Baroque palaces like Zwinger and invited rulers from across Europe. Augustus organized lavish events like hunting games, masquerades, ballets, and operas. Such festivities were intended to be without parallel and unsurpassed in terms of splendor. Augustus sought the comparison with Louis XIV of France whose fame and absolute power he attempted to emulate and realize in Dresden.

태양왕을 동경하다 Admiration for the Sun King

17~18세기 유럽의 왕들은 절대군주의 위엄과 권위를 궁전 에서 화려한 의식과 행사를 열어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당대 유럽의 왕들이 본받고자 했던 왕은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였습니다. 루이 14세가 즐겨 변장했던 태양신 아폴론과 헤라클레스, 로마 황제의 모습은 이후 유럽의 절대 군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를 동경한 아우구스투스도 이러한 이미지를 중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가면무도회에서 태양신으로 분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관식 행렬에 사용된 말을 작은 태양 모티프로 장식했습니다. 아울러 그림이나 조각에서 스스로를 로마 황제나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양신과 로마 황제의 모습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원한 절대군주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he European rulers of the 17th to 18th centuries liked to show off their power through extravagant court ceremonies and events. Their role model was Louis XIV of France, known as the Sun King. He often disguised himself as Apollo, the Greek and Roman god of the sun, Heracles, a divine hero in Greek mythology, or a Roman emperor, which became the most common icons for Europe's absolute monarchs. Augustus the Strong, a great admirer of Louis XIV, also actively adopted these images in his own important events. He disguised himself as the god of the sun at masked balls and decorated horses with small sun motifs at his coronation procession. He ordered that he be represented as a Roman emperor or Heracles in paintings and sculptures. Such representations played a meaningful role in completing the image he aspired to: that of a monarch with absolute power.

18세기 유럽의 사냥무기

Hunting Weapons in the Eighteenth Century Europe

사냥은 전쟁 연습의 일환이자 고기를 마련하는 수단 이었지만, 15~16세기에는 귀족과 상류사회 남성들의 스포츠 활동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석궁은 16세기를 거치면서 화약 무기인 소총에 자리를 내어주고 전장(戰場)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사냥과 사격 시합에서는 여전히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냥용 칼은 상처를 입은 동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거나 잡은 사냥감을 해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체용 칼의 칼집에는 고기의 절단이나 가죽의 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칼 여러 개와 작은 톱, 줄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바퀴식과 부싯돌식 소총도 사냥에 이용되었습니다. 상류 계층이 사용한 사냥용 무기는 정교하게 장식된 것이 많았는데, 이는 소유주의 지위와 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사냥용 무기의 제조는 17~18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도 금, 은, 상아, 황동, 자개와 같은 고급 재료로 화려하게 만든 사냥용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한껏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Hunting was for battle practice and a resource for supplying meat, but it had changed in character by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o a sporting activity for aristocrats and upper-class men. Even though the crossbow passed through the 16th century and was replaced by rifles in battle, it was still widely used in hunting and shooting matches for sport.

The hunting knife was used to deliver the final blow to a wounded animal or to butcher the prey that was caught. The butchering knife and its sheath consisted of several small knives and small saws or cords that could be used for skinning and cutting the meat. Wheel-lock and flintlock rifles were also used for hunting.

The hunting weapons used by the upper classes were often elaborately decorated, demonstrating the social status and wealth of the owners. The production techniques of these advanced hunting weapons reached their peak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ugustus the Strong also used hunting weapons made of luxurious materials such as gold, silver, ivory, brass, and mother-of-pearl to flaunt his absolute power.